

금강경

October, 2024

October 17, Thu, 2024

제1법회인유분 : 법회의 유래

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.

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대비구 1,250인과 함께 머무셨다.

이때 세존께서, 공양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, 사위성으로 들어가 결식하셨다.

그 성안에서 차례로 탁발한 후,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, 공양을 마친 뒤, 가사와 발우를 거두고, 발을 씻은 다음,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.

제2선현기청분 : 선현이 일어나 청하다

그때 장로 수보리가, 대중과 함께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, 편단 우견하고 우슬착지하여, 합장하며 공손히 부처님께 여쭙었다.

희유하십니까, 세존이시여. 여래께서는 일체의 보살들을 잘 호념해 주시고, 잘 부촉해 주십니다. 세존이시여,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하면, 어떻게 살아야 하며,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?

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.

선재 선재, 수보리야. 네가 말한 바처럼, 여래는 일체의 보살들을 잘 호념해 주고, 잘 부촉해 준다.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,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니.

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하면, 응당 다음과 같이 살고,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.

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세존이시여, 하며 듣고자 원하였다.